

산자부, '25년 자동차 2차 신규 과제 공고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25. 6. 3.(화)

과제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31개 세부과제)이며, 341억 원 규모이다.

앞서 '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을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25.1Q 완성차 시장 성장률(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Marklines 등): 글로벌 +4.6%, 중국 +11.1%, 미국 +3.3%, 인도+2.2%, 일본 +13.6%, 한국 +2.6%

부문별 공고 과제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 125억 원이다.

'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5C-rate)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13개 세부과제) 216억 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분야 자원 내용

과제명	개요
전방위 센서 탑재 양산차 적용을 위한 End-to-End 자율주행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279.76억 / 42개월(4년) ○ 개발내용 : 전방위 센서를 탑재한 양산차에 적용 가능한 E2E 자율주행 기술 확보 및 고성능 E2E 자율주행 모델, 지속 가능한 학습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보
SDV용 AI가속기 및 A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290억 / 42개월(4년) ○ 개발내용 : 차세대 SDV(SW-defined Vehicle)와 레벨4+ 자율주행 고도화에 필요한 1000 TOPS급 AI 알고리즘 연산능력을 가진 차량용 AI 가속 기술의 개발
국산 SoC 기반 차량용 중앙컴퓨팅 시스템 개발 및 SW 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190억 / 42개월(4년) ○ 개발내용 : 국산 SoC를 활용한 ADAS & Cockpit 통합용 차량 중앙컴퓨팅 시스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차량용 SW 생태계 구축 및 검증
다양한 OEM 및 차종/차급의 SDV 가능 지원 가능 차량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190억 / 42개월(4년) ○ 개발내용 : 다양한 차량 제조사의 차종(세그먼트)에 대응 가능한, 글로벌 산업규격 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 적용 차량 단위 통합 전장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반 능동형 운전자 어시스턴스 시스템/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70억 / 30개월(3년) ○ 개발내용 : 교통약자(고령자, 색맹 운전자등)를 위한 소형 전기차 기반 능동형 AI 어시스턴스 시스템 및 주행편의/안전지원 통합 솔루션 개발
AI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합성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고도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70억 / 30개월(3년) ○ 개발내용 : 자율주행 인지 판단 제어의 전체 부분 통합 AI(E2E) 모델 검증을 위한 고정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국민 수용성 확대
대형트럭 화물운송을 위한 End-to-End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125억 / 30개월(3년) ○ 개발내용 : 중간물류 시장 내 대형트럭 화물운송 자동화를 위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다목적 중형급(1톤초과-5톤미만) 무인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간 : 총 68.7억 / 30개월(3년) ○ 개발내용 : 물류센터/산업단지/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상용화 기술개발

편리한 일상과 혁신산업 성장을 함께! 「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2025. 6. 19.(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감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였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사업유형	지자체	사업부제
거점형	전북 전주시	전북 Smart Region의 출발점, Adaptive City 전주
감소형	경기 안산시	미래 상호문화 플랫폼 도시의 표준을 만든다
	경북 김천시	Mobility Do Everything, 모두를 위한 스마트도시
	경남 김해시	시민과 첨단기술이 하나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 ACE 김해
특화단지	대구광역시	AI산업 플랫폼 스마트 알파시티

공모 개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감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감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에는 총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 거점이자 AI 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간과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AI 중심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어 전북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목적맞춤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 등)를 제공하고, 고령층·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 PBV(Purpose Built Vehicle):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한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별 서비스 제공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도시

개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지자체) 전북 전주 ○ (총사업비) 324.1억원 ○ (사업유치) 한옥마을, 전주역 일원 등 9개 거점 ○ (주요내용) 목적맞춤형 모빌리티(이동형 은행, 캠핑카, 교통약자 동행), 실시간 실시간 도로위험 정보, 전기차 충전 화재관리, AIoT 교통관리, AI시민건강케어, MaaS, 이동형 진료소, 시약지들봄 케어 ○ (참여기관) (주)인프라,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주)영국씨앤피, (주)엠티에스컴퍼니, (주)그리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유형(지역소멸 대응형, 기후위기 대응형)을 자율 선택하며,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안산시(지역소멸 대응형), 김천시(지역소멸 대응형), 김해시(기후위기 대응형)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다국어 지원 인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인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발판으로 어모면, 개령면, 울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김천형 MaaS,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시도시안전관리, 생활물류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으로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기술 기반 기후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소(태양광)를 구축하고,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재활용), 공동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 시민참여 유도(관리비 차감, 지역화폐 보상 등)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도시

지자체	개요	주요내용
경기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60억원 ○ (사업위치) 안산시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 ○ (주요내용) MaaS, 자율주행 셔틀, 다문화 상권 활성화 플랫폼, 에너지관리 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 도로위험 감지, 도시데이터 플랫폼 등 ○ (참여기관)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씨엠티정보통신(주) 	 <p>안산시 강소형(중소규모) 특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미래 상하문화 플랫폼 도시의 표준을 만든다</p> <p>사업 개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략,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범용성, 상용화/서비스 스마트 서비스 대비 만든 New 스마트도시 최종 목표 달성 구현 방안, 상용화/서비스 특화 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기존도시, 미래도시, 사업기간: 2023.01 ~ 2025.12</p>
경북 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60억원 ○ (사업위치) 김천시 어모면, 개령면, 울곡동 일원 ○ (주요내용) 김천형 MaaS, 찾아가는 자원순환(논촌 재활용품 등), 이동식 편이점-드론 통합 생활물류,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 관리,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 (참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주), SK플래닛(주) 	 <p>지역 특화 중소기업 융성사업 운영 지원 서비스 서비스 (1차 단계) 실현 MOBILITY DO Everything! 모빌리티를 위한 스마트도시</p> <p>주요 전략, 사업 계획, 추진 단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범용성, 사업기간: 2023.01 ~ 2025.12</p>

지자체	개요	주요내용
경남 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65억원 ○ (사업위치) 김해시 전역 ○ (주요내용) 시민참여 탄소자감 교통, 유희부지 활용 햇빛발전소, 침수감지 볼라드,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기후대응 플랫폼 등 ○ (참여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주)아이비시스템즈, 코나이이(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 (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AI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시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선정도시

개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68.15억원 ○ (사업위치)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 ○ (특화유형) 모빌리티&로봇, 지능형관제&안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기업전용 5G망 및 스타링크, 데이터허브 고도화, AI 컴퓨팅 자원, 테스트베드 등 - [서비스] 온디바이스 AI 기반 첨단행정지원 및 CCTV 스마트 관제, AI 기반 로봇, 자율주차 등 ○ (참여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텔레칩스, (주)베이리스, (주)유엔디, (주)사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